

금융제약과 사회적 기업의 성장: * 대표자 성의 차이

김우영**, 홍성호***

초 록

본 연구는 금융제약으로 인하여 사회적 기업의 성장에 한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정지원이 이러한 금융제약을 완화시켜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지를 충남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Evans and Jovanovic(1989)의 이론에 기반하여 실증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추정한 결과, 자산규모가 사회적 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따라서 충남의 사회적 기업들이 금융제약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재정지원의 금액이 클수록 자산의 효과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재정지원의 금융제약완화 효과를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사회적 기업 대표자의 성을 고려할 경우 금융제약완화 효과는 남성 대표자보다는 여성 대표자에게서 더 중요하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이는 정부지원금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 대표자의 성과 사업 확장 의지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금융제약, 사회적 기업

I. 서 론

사회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의 다양한 목적을 지닌 사회적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사회적 기업육성법이 시행된 2007년, 50개소로 시작하여 6년이 지난 2013년 말 현

* 본 논문의 초고는 한국노동경제학회 201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초고에 대해 좋은 논평을 해주신 한국고용정보원 권혜자 박사님, 세미나 참가자들, 그리고 세 분의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kwy@kongju.ac.kr)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조교수(shong11@kongju.ac.kr, 교신저자)

재 1,012곳이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다(문화일보 12월 26일). 사회적 기업의 주된 목적은 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익도 창출해야 한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민간기업과도 경쟁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지속성, 경쟁력 유지는 사회적 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윤윤규 2012).

초기의 사회적 기업은 중앙정부 즉 노동부를 통해 인증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으며 16개 광역시도 모두 사회적 기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김혜원, 2011).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부족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각 지자체별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하여 근로자의 인건비를 보조받거나 사업비를 보조 받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재정지원이 고용창출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김혜원(2011)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지원 기간 내 과잉고용을 유발하고, 지원 종료 후 과잉고용조정이 나타나는 것을 보이면서 인건비 지원 중심의 제도에서 탈피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박찬임(2008), 이광우(2008), 배진영(2010) 역시 인건비 지원과 같은 직접 지원을 지양하고 기업적 역량을 증대시키는 형태의 지원에 주력할 것을 주장한다. 한편, 윤윤규(2012)는 사회적 기업과 비교집단기업 간의 고용증가를 비교함으로써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종수·홍성효(2013)는 재정지원의 규모가 클수록 사회적 기업의 자체고용이 증가함을 보이면서 재정지원이 구축효과를 나타내기 보다는 규모의 경제에 의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재정지원효과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과연 재정지원이 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시켜 사회적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은 영세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자신들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더라도 열악한 자산이나 유동성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인력을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만약 재정지원이 사회적 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시켜준다면 기업은 더 높은 성장과 고용창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금융제약으로 인하여 사회적 기업의 성장에 한계가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정지원이 이러한 금융제약을 완화시켜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금융제약이 해당 기업 대표자의 성별에 따라 상이한지에 대해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통상적으로 여성 기업가는 상대적으로 위험-회피적 경향이 강하고 사회 네트워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금융제약이 보다 크게 작용할 것이며, 본 연구는 이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ENSR, 1996).¹⁾

여성 기업가에 의한 창업은 남성 기업가에 의한 경우에 비해 기업규모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것으로 종종 보고된다(Carter and Rosa, 1998; OECD, 1998).²⁾ 또한, Holmes and Kent(1991)에 의한 “제한된 자본조달순위이론(restricted Pecking Order Theory)”에 따르면 영세한 기업은 주식발행을 통한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주와 최고관리자들이 그들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본조달이 주로 내부 자본(internal equity)에 의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추가적인 조달은 회사채의 발행을 통해 이뤄진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 기업가의 경우 위험-회피적 경향 및 제한적 네트워크와 더불어 영세한 사업규모로 인해, 재정지원의 금융제약 완화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기업의 금융제약과 재정지원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

1) 부록의 <그림 1>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한 연도별 신생기업체의 수에서 여성 대표자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기업 집단에서 여성 대표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전주진(2006)은 여성 관리자가 업무 네트워크를 상대적으로 덜 강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2) Verheul and Thurik(2001)에 의하면, 창업규모에서 여성 기업가의 상대적 영세성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 여성은 창업 이전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거나 가사 혹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창업을 위한 자본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작다. 둘째, 여성은 서비스 산업과 같이 상대적으로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서 창업을 한다. 셋째, 여성은 상대적으로 위험-회피적이다.

는 2012년 6월에 충남발전연구원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충남 소재 사회적 기업 전수에 대한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한다. 충남의 사회적 기업은 2012년 6월 현재 충남형 사회적 기업 82개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21개 기업으로 총 103개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조사는 이들 기업의 일반현황, 인력현황, 재무현황, 의사결정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개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액은 충남도의 내부 자료를 이용하며 분석에서는 설문조사결과와 재정지원액을 결합한 자료를 사용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을 제시한다. 제3장은 분석에 이용된 자료와 변수에 대해 설명한다. 제4장은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이러한 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한다. 마지막 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II. 분석모형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대부분 영세하며 자본집약적이기 보다는 노동집약적인 생산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함수가 노동력에만 의존한다고 가정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사회적 기업의 이윤극대화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³⁾

$$\begin{aligned} \max \quad & \theta L^\alpha + r(z - wL) \\ & wL \in 0, \lambda z \end{aligned} \quad (1)$$

3) 사회적 기업의 목적이 이윤극대화라는 것에는 충분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윤추구도 사회적 기업의 여러 형태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Shaw and Carter(2007)는 Standford 대학의 사회적 기업 정신에 기반하여 사회적 기업을 다음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 첫째, 사회적 필요를 달성하기 위한 이윤추구형 조직(for-profit organisations which use their resources to creatively address social issues), 둘째, 사람들의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도와주는 비영리 조직(not-for-profit organisations which help individuals establish their own small, for-profit businesses), 마지막으로 자신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사람들에게 일자리나 훈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영리 단체(not-for-profit ventures which create economic value to fund their own programmes or to create employment and training opportunities for their client populations). 첫 번째 형태는 이윤추구형이며, 세 번째 형태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이윤을 완전히 무시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식 (1)에서 θ 는 기업가의 능력, L 은 노동력, θL^α 는 기업의 매출소득을 나타낸다(생산물의 가격은 1로 가정된다). 또한, z 는 기업가의 자산, w 는 임금, r 은 1+이자율을 나타내며, 따라서 $r(z-wL)$ 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리금을 의미한다. 식 (1)은 Evans and Jovanovic(1989)의 모형에 자본 대신 노동을 대체한 것이다.

이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에 제약을 받는다고 하자. 즉, 기업이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최대의 금융자산은 λz 이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금융제약을 가진다.

$$wL \leq \lambda z, \text{ where } \lambda \geq 1 \quad (2)$$

만약 최적 고용량(L^*)이 금융제약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면 식 (1)로부터

$$L^* = \left(\frac{\alpha \theta}{rw} \right)^{\frac{1}{1-\alpha}} \quad (3)$$

이 되며, 이 경우 기업의 매출소득(y^*)은 다음이 된다.

$$y^* = \theta \left(\frac{\alpha \theta}{rw} \right)^{\frac{\alpha}{1-\alpha}} \quad (4)$$

하지만 만약 식 (2)가 제약으로 작용한다면 1차 미분조건, 즉 $\theta \alpha L^{\alpha-1} - rw > 0$ 이 되며, 최적 고용량(L^*)은

$$L^* = \frac{\lambda z}{w} \quad (5)$$

이 된다. 금융계약 하에 기업의 매출소득은

$$y^* = \theta \left(\frac{\lambda z}{w} \right)^\alpha \quad (6)$$

이 되며, 위의 경우 z 가 증가하면 매출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vans and Jovanovic(1989), Burke, FitzRoy and Nolan(2000) 등은 금융제약이 존재할 경우 자산이 증가할수록 기업가(자영업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자영업으로의 진입과 생존확률을 높인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또한, Holtz-Eakin, Joulfaian and Rosen(1994)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나 자산이 많을수록 자영업의 지속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사회적 기업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식 (4)와 (6)을 통하여 만약 기업가가 금융제약을 경험하고 있다면 자산의 증가는 고용을 증대시키며 결과적으로 기업가의 소득을 높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인건비 지원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정부의 인건비 지원은 식 (2)의 제약을 완화할 것이며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자산이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 금융제약을 갖는지, 정부의 재정지원이 금융제약을 완화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증모형을 설정한다.

$$\ln y_i = X_i\Gamma + \beta_1 \ln w_i + \beta_2 \ln z_i + \beta_3 s_{2i} + \beta_4 s_{3i} + \beta_5 \ln z_i s_{2i} + \beta_6 \ln z_i s_{3i} + e_i \quad (7)$$

위에서 s_2 는 정부지원액을 3분위로 구분했을 경우, 중간분위에 속하면 1, 아니면 0, s_3 은 정부지원액 상위 1/3에 속하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이다. 기준은 정부지원액 하위 1/3에 속하는 기업이다. 자산이 매출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식 (7)을 $\ln z$ 로 미분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

$$\frac{\partial \ln y}{\partial \ln z} = \beta_2 + \beta_5 s_2 + \beta_6 s_3 \quad (8)$$

따라서, 정부지원액 하위 1/3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는 자산의 영향이 β_2 가 되며, 금융제약이 존재할 경우 이들은 0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다. 정부지원액 중간 1/3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는 $\beta_2 + \beta_5$ 가 되고, 정부지원액 상위 1/3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는 $\beta_2 + \beta_6$ 이 되며 만약 정부의 재정지원이 금융

제약을 완화하는 것으로 작용한다면 $\beta_2 + \beta_5 > \beta_2 + \beta_6$ 이 예상된다.

Ⅲ. 자료 및 변수

1. 자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충남발전연구원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전문설문업체 조사원의 직접 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를 통해 구축한 충남 소재 사회적 기업 전수에 대한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한다. 연간 수치를 나타내는 변수의 경우 2011년 말을 기준으로 하며, 그 외의 변수는 조사시점-2012년 6월-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실태조사는 개별 사회적 기업의 일반현황(기업형태, 업종, 인증형태, 인증연도 등), 인력현황(정규직 고용, 비정규직 고용, 취약계층 고용, 평균급여, 인증 전후 자체 예산에 의한 고용 등), 재무현황(자산, 부채, 수입, 순이익, 매출액 등), 의사결정구조, 대표자 특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⁴⁾

충남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도별 지원금 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에 1,129.4백만원, 2011년에 2,996.8백만원, 그리고 2012년 6월말 기준 6,869.4백만원으로 조사되며, 2012년의 지원금 가운데 83.47%가 인건비 지원에 해당한다.

〈표 1a〉 지원금 규모에 따른 업체수 분포

지원금	전체		남성 대표		여성 대표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1백만원 이하	32	34.04	28	43.08	4	13.79
11~46백만원	31	32.98	19	29.23	12	41.38
46백만원 초과	31	32.98	18	27.69	13	44.83
합계	94	100	65	100	29	100

〈표 1a〉는 개별 사회적 기업이 2010년과 2011년 2년에 걸쳐 받은 지원금 규모에 따른 업체수 분포를 나타낸다. 지원금이 1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4) 설문지에는 자산 뿐 아니라 자본액에 대한 정보도 있으나 이론적 모형과 기존 연구를 따라 유동성 해소 수단으로 자본이 아닌 자산을 사용한다.

32개 업체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포함된 94개 업체 가운데 34.04%를 차지한다. 지원금이 46백만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수도 31개(32.9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다. 개별 업체의 대표자 성별로 지원금 규모를 살펴보면,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 지원금 규모가 클수록 업체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볼 수 있다.

〈표 1b〉 표본의 업종별 분포

업종	빈도	백분율	업종	빈도	백분율
농업	17 (2)	18.09	숙박 및 음식점업	5	5.32
임업	1	1.06	교육서비스업	3	3.19
제조업	24 (12)	25.5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1 (5)	11.70
도매/소매업	9 (3)	9.5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5.32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청소)	7 (2)	7.45	기타	6 (2)	6.38
건설업	6 (3)	6.38	합계	94 (29)	100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

〈표 1b〉는 분석에 포함된 업체들의 업종별 분포를 제시한다. 제조업에 속한 업체의 비중이 25.5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농업(18.0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70%), 도매/소매업(9.575) 등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제조업에 속한 업체가 12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인증시기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2년 6월말을 기준으로 103개의 충남 소재 사회적 기업 가운데 3개 업체가 2008년에 인증을 받았고, 2009년에 역시 3개, 2010년에 30개, 2011년에 48개, 그리고 2012년에 19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⁵⁾

5) 103개 업체 가운데 21개가 고용노동부 인증업체이며, 나머지 82개 업체가 충남형 사회적 기업에 해당한다.

2. 변수

〈표 1c〉는 실증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를 제시한다. 매출액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375.26백만원과 1,437.42백만원이며, 고용은 평균 13.23명(표준편차 15.52명)으로 가장 큰 업체의 경우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다. 평균 임금(월급)은 107.38백만원이고 평균 자산 규모는 245.75백만원으로 나타난다. 대표자 특성을 보면, 무보수 자원봉사자의 경우가 11.7%이고, 여성이 30.9%, 그리고 평균 연령은 대략 47세로 나타난다. 주식회사 형태를 띠는 경우는 60.6%이며,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업체부터 19년이 경과한 업체가 포함되었으며 평균적으로는 설립 후에 4.75년이 경과한 것으로 조사된다. 인증형태에 의한 분포에서는 일자리 제공형이 78.7%로 가장 높고, 사회 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이 각각 7.4%를 차지한다.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 매출액, 고용, 임금, 자산이 전체 평균을 다소 상회하며 대표자의 연령은 평균적으로 2세가량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신에 업력은 다소 길고 주식회사의 비율도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표 1c〉 변수의 기초통계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전체	여성 대표			
매출액(log, 원)	15.895	16.654	6.815	0.000	23.341
고용(log, 명)	2.221	2.374	0.800	0.000	4.754
임금(log, 백만원)	4.655	4.684	0.212	3.689	5.298
자산(log, 백만원)	4.409	4.488	1.451	1.202	8.189
대표자 특성					
무보수 자원봉사	0.117	0.069	0.323	0	1
여성	0.309		0.464	0	1
연령	46.798	44.655	9.947	26	77
주식회사 여부	0.606	0.655	0.491	0	1
업력	4.745	5.241	3.401	1	19
인증형태					
일자리제공형	0.787	0.724	0.411	0	1
사회서비스제공형	0.074	0.103	0.264	0	1
혼합형	0.074	0.069	0.264	0	1
지역사회공헌형	0.043	0.034	0.203	0	1
기타형	0.021	0.069	0.145	0	1

IV. 실증분석 결과

1. 금융제약

충남의 사회적 기업들이 금융제약을 경험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지방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이 이러한 금융제약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식 (7)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a>에 제시된다. 식 (7)의 X_i 변수는 이론적으로는 경영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변수들이지만 기업의 매출액은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시장구조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증모형에서는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도 모두 포함시킨다.

〈표 2a〉 실증분석 결과_금융제약

	로그 매출액		
	(1)	(2)	(3)
로그임금	-3.2519 (1.16)	-2.4120 (0.88)	-1.8302 (0.57)
지원금			
11~46백만원 이하	10.8041+ (1.94)	9.0910+ (1.73)	7.9294 (1.44)
46백만원 초과	9.0876 (1.49)	6.6153 (1.07)	4.5591 (0.66)
로그자산(A)	2.7691** (3.12)	2.5125** (2.76)	2.5137* (2.25)
로그자산*11~46백만원 이하(B)	-1.6895 (1.57)	-1.8501+ (1.78)	-1.2818 (1.16)
로그자산*46백만원 초과(C)	-2.0400+ (1.83)	-2.1537* (2.00)	-1.5506 (1.23)
금융제약(p-값)			
H0 : A + B = 0	1.080(0.08)	0.662(0.33)	1.232(0.05)
H0 : A + C = 0	0.729(0.30)	0.359(0.59)	0.963(0.26)
대표자 특성			
무보수 자원봉사		-3.4177 (1.40)	-1.7298 (0.71)
여성		1.0731 (0.83)	0.8927 (0.55)
연령		0.0756 (1.07)	0.0652 (0.86)
주식회사 여부		0.5072 (0.33)	-1.7312 (0.97)
업력		0.3939* (2.30)	0.5485* (2.27)
인증형태			
일자리제공형		14.5864* (2.12)	12.2072* (2.48)
사회서비스제공형		14.2294* (1.99)	10.5219* (2.05)
혼합형		14.7543+ (1.98)	11.9279* (2.10)
지역사회공헌형		9.1814 (1.16)	7.9187 (1.18)
인증연수		-2.1180* (2.20)	-1.0507 (1.07)
상수항	17.7907 (1.37)	4255.8027* (2.20)	2107.8285 (1.07)
고정효과 업종	-	-	11
Adj. R2	0.1044	0.1693	0.1849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강건한(robust) t-값을 나타내며, +, *, 그리고 **는 각각 10%, 5%, 그리고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지원금 규모의 준거집단은 지원금이 11백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인증형태의 준거집단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유형에 해당함. 관측수는 94개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로그자산의 계수를 보면 세 가지 모형 모두에서 양수이며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준거집단인 재정지원 11백만원 이하의 기업들은 자산이 1% 증가할 때 매출액이 약 2.5% 증가하고 있으며(모형 (3)을 기준으로 할 때) 이는 이들 기업들이 금융제약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로그자산과 지원금 규모의 교차항을 보면 모형 (3)을 기준으로 할 때, 지원금 규모 두 번째 집단(11~46백만원 이하)의 경우 자산이 1% 증가할 때 매출액이 약 1.2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9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이들 기업들은 여전히 금융제약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원금 규모 세 번째 집단(46백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자산이 1% 증가할 때 매출액이 약 0.9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90% 수준에서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즉, 지원금이 46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업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더 이상 자산에 구애받지 않으며 금융제약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이론적 모형에서 제시한 예측과 부합되는 결과이다.

〈표 2a〉에 나타난 다른 변수들의 추정결과를 보면 업력이 기업의 매출액을 늘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타 기업에 비하여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이 역시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표자의 인적특성은 사회적 기업의 매출액 증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인증연수-즉, 인증을 받은 이후 연수의 경과-는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인증연수의 증가에 따라 인건비 지원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충남형 사회적 기업의 경우 인증 1년차에 100% 인건비 지원을 받으나 2년차에는 90%로 감소하고, 고용노동부의 인증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 지원비율이 90%(1년차)에서 70%(2년차)로, 다시 50%(3년차)로 점차 감소한다.

2. 금융제약에서의 대표자 성별 차이

금융제약의 강도는 사회적 기업 대표자의 성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

다. 우선, 여성이 남성보다는 더 심각한 금융제약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⁶⁾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의 빈도나 경력이 여성보다 더 많고 길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여성보다는 남성의 신용을 더 신뢰하고 결과적으로 더 우호적으로 대출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데 만약 남성이 여성보다 더 위험 감수형(risk-taker)이라면 그 만큼 사업을 더 확장하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희망 고용수준은 더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금융제약이 구속력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즉, 식(2)가 구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⁷⁾ 결국, 여성 대표자가 남성 대표자보다 더 금융제약을 가지는지 여부는 실증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문제이다.

6) 남성 기업가에 비해 여성 기업가는 대출을 위한 은행이나 공식적인 금융기관(OECD, 1998) 혹은 비공식적 금융네트워크(Olm et al., 1988; Riding and Swift, 1990)에 대한 접근성에 보다 큰 제약을 지니며,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자신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가족 혹은 친구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향이 있다(Carter and Rosa, 1998; Honig-Haftel and Martin, 1986; Neider, 1987; Hisrich and Brush, 1987; Olm et al., 1988; Johnson and Storey, 1993).

7) 성지미·안주엽(2007)은 KLIPS를 이용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위험감수도가 높으며 위험감수도가 증가할수록 자영업 선택확률도 증가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표 2b〉 실증분석 결과_여성 대표자의 금융제약

	로그 매출액		
	(1)	(2)	(3)
로그임금	-3.7607 (1.25)	-2.5909 (0.84)	-1.9979 (0.58)
지원금			
11~46백만원 이하	7.1678 (1.02)	10.8497 (1.33)	13.8025* (2.01)
11~46백만원 이하*여성	6.2519 (1.15)	-8.5447 (0.83)	-19.4331+ (1.93)
46백만원 초과	6.0515 (0.91)	7.4474 (0.90)	5.5846 (0.62)
46백만원 초과*여성	3.7968 (0.47)	-7.2078 (0.61)	-12.2368 (0.96)
로그자산(a)	2.5152** (2.81)	3.1557* (2.52)	3.4997** (2.91)
로그자산*			
여성(b)	0.8109* (2.24)	-1.8692 (1.31)	-2.5285+ (1.83)
11~46백만원 이하(c)	-0.7237 (0.49)	-2.1174 (1.22)	-2.4221 (1.62)
11~46백만원 이하*여성(d)	-2.2256 (1.79)+	1.2336 (0.59)	2.9980 (1.44)
46백만원 초과(e)	-1.1808 (1.04)	-2.1062 (1.48)	-1.2666 (0.82)
46백만원 초과*여성(f)	-1.9028 (1.35)	0.6972 (0.36)	0.6410 (0.31)
금융제약(p-값)			
남성 $H_0: a + c = 0$	1.792(0.12)	1.038(0.41)	1.078(0.23)
남성 $H_0: a + e = 0$	1.334(0.07)	1.050(0.17)	2.233(0.02)
여성 $H_0: a + b = 0$	3.326(0.00)	1.287(0.02)	0.971(0.18)
여성 $H_0: a+b+c+d = 0$	0.377(0.04)	0.403(0.40)	1.547(0.08)
여성 $H_0: a+b+e+f = 0$	0.243(0.82)	-0.123(0.91)	0.346(0.77)
대표자 특성			
무보수 자원봉사		-3.5976 (1.31)	-1.6339 (0.63)
여성		12.4918 (1.67)	19.3345* (2.59)
연령		0.1027 (1.23)	0.1218 (1.54)
주식회사 여부		0.4197 (0.26)	-2.0415 (1.15)
업력		0.3563+ (1.85)	0.4695* (2.02)
인증연수		-1.5845 (1.49)	-0.0559 (0.05)
상수항	20.8088 (1.49)	3181.5775 (1.49)	105.4088 (0.05)
고정효과			
업종	-	-	11
인증형태	-	5	5
Adj. R ²	0.0810	0.1419	0.2085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강건한(robust) t-값을 나타내며, +, *, 그리고 **는 각각 10%, 5%, 그리고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지원금 규모의 준거집단은 지원금이 1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관측수는 94개임.

〈표 2b〉는 로그자산과 지원금에 여성 대표자를 나타내는 여성더미를 교차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가장 포괄적인 모형 (3)을 기준으로 금융제약이 여성과 남성 대표자 사이에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로그자산의 계수는 3.4997로 나타나며 99%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성 대표자의 경우 자산이 1% 증가할수록 매출액이 약 3.5%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은 금융제약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 대표자의 경우는 로그자산*여성의 계수로 판단할 수 있는데 자산이 1% 증가할 때 매출액이 약 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90%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⁸⁾ 하지만 모형 (1)과 (2)에서는 9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융제약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남성에 비하여 여성 대표자가 상대적으로 금융제약을 덜 경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⁹⁾

다음으로 지원금이 금융제약에 미치는 효과가 남성과 여성 대표자 사이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로 한다. 남성 대표자의 경우 지원금이 가장 낮은 집단에 있어 자산이 매출액에 미치는 효과는 3.5%이며, 중간수준의 지원금을 받는 집단의 경우 1.1%, 높은 수준의 지원금을 받는 집단의 경우 2.2%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모형 (3)에 근거). 이들 값에 대한 검정 값을 보면 중간집단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지원금이 가장 낮은 집단과 가장 높은 집단의 경우 자산이 매출액에 미치는 효과는 적어도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성 대표자의 경우 지원금이 높아지더라도 금융제약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높은 지원금을 받는 대표자의 경우 그 만큼 실적이 좋을 뿐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더 확장하려는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여성의 경우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모형에 따라서 검정 값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낮은 지원금에서는 자산이 매출액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

8) 이에 대한 검정은 〈표 2b〉 중간 금융제약(p-값)에 해당한다. 즉 여성 $a+b=0$ 에 대한 검정 값이다. 앞의 수치는 계수의 합이며 괄호안의 값은 p-값을 나타낸다.

9) 이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포함된 사회적 기업들 가운데 여성 대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크고 업력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으로 유의하지만 높은 지원금에서는 자산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표 2b〉 중간에 제시된 금융제약(p -값)을 보면 가장 지원금이 높은 집단의 경우 자산이 매출액에 미치는 효과는 $a+b+e+f$ 인데 그 효과가 0인 가설은 모든 모형에서 기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성 대표자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금융제약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지원금 규모의 내생성

비록 〈표 2a〉와 〈표 2b〉에서 지원금 규모가 2010년과 2011년의 수치로 종속변수(2012년 6월 조사시점 기준)에 비해 앞선 시기에 측정되었지만 이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내생성(endogeneity)의 가능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지원금 규모는 사회적 기업 인증과 별도로 해당 사회적 기업의 성장 혹은 지속 가능성이나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 충남도청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매출이나 고용 등의 측면에서 성장가능성이 큰 사회적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지원금이 지원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지원금 규모가 이처럼 내생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에서 고려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이용한 2단계 추정법으로 식 (7)을 다시 추정한다.

〈표 2c〉 지원금 규모의 내생성 고려를 위한 1단계 추정결과

	지원금 규모 (11백만원 이하, 11~46백만원, 46백만원 초과)
로그임금	-0.4493 (0.56)
로그자산	0.0237 (0.21)
도구 변수	
취약계층 비율	0.2421 (0.45)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이 목적	0.8693* (2.24)
대표자 특성	
무보수 자원봉사	-0.4597 (1.06)
여성	0.5543+ (1.74)
연령	0.0112 (0.77)
주식회사 여부	-0.0997 (0.29)
업력	0.0614 (1.16)
인증형태	
일자리제공형	1.9602+ (1.84)
사회서비스제공형	1.6821 (1.52)
혼합형	1.8758+ (1.67)
지역사회공헌형	1.0827 (0.72)
인증연수	-0.9570** (4.37)
고정효과	
업종	11
관측수	94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t-값을 나타내며, +, *, 그리고 **는 각각 10%, 5%, 그리고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인증형태의 준거집단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유형에 해당함.

먼저 <표 2c>는 지원금 규모를 세 집단- 즉, 11백만원 이하, 11~46백만원, 그리고 46백만원 초과-으로 구분하는 내생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금융제약의 존재 여부를 추정하기 위한 원래의 회귀식에 포함된 모든 외생변수들과 도구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1단계 회귀식의 ordered probit 모형에 대한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도구변수로는 종사자 가운데 취약계층- 즉, 고령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저소득 기초수급자, 그 외 청년실업자 등-의 비율과 해당 사회적 기업이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인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가 회귀식에 포함되었다.¹⁰⁾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취약계층 비율은 지원금 규모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이 사회적 기업 인증신청의 목적인 경우에는 지원금 규모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됨을 볼 수 있다. 즉, 충남도청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사회적 기업의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때 해당 기업의 인증신청 목적이 취약계층의 일자리제공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신청 목적은 해당 기업의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지원금 규모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변수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표 2d>는 <표 2c>에서 추정된 개별 사회적 기업의 지원금 규모에 의한 집단 분류의 결과를 이용한 2단계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다시 말해, <표 2c>의 1단계 회귀분석에서는 지원금 규모에 의한 세 집단 가운데 각각에 속할 확률을 추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해 이 추정된 수치들 가운데 가장 높은 확률을 나타내는 집단을 해당 기업의 추정된 집단으로 간주하고 이를 <표 2d>의 2단계 회귀분석에 포함한다.¹¹⁾

지원금 규모의 내생성에 대한 가능성이 고려된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사

10) 충남 소재 102개 사회적 기업의 고용 가운데 48.1%가 고령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등을 포함하는 취업취약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1) 지원금 규모에 의한 실제 집단 분류와 추정된 집단 분류의 분포는 부록 <부표 1>에 제시된다. 분석에 포함된 94개의 표본 가운데 지원금 규모에 의한 실제 집단 분류와 추정된 집단 분류 간 일치하는 경우는 57개 표본(60.6%)으로 나타난다. 지원금이 11~46백만원인 31개 사회적 기업의 경우 1단계 추정에 의해 집단 분류에서 단지 13개 표본만이 해당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회적 기업의 매출액은 금융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로그자산의 계수는 〈표 2a〉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작지만 모형 (2)와 (3)에서 90% 수준에서 여전히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원금의 규모가 중간인 집단의 경우는 95%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a+b=0$ 의 검정결과). 반면,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집단의 경우, 자산의 증가가 매출액의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업들은 금융제약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지원금 규모의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은 〈표 2a〉와 비교하여, 자산의 매출액에 대한 효과가 내생성 고려 후에 다소 작아짐을 볼 수 있으나 지원금 규모에 의한 집단 간 차이-특히,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집단과 그 이외의 집단 간 차이-는 오히려 보다 명확해 짐을 볼 수 있다.

〈표 2d〉 지원금 규모의 내생성을 고려한 실증분석 결과_금융제약

	로그 매출액		
	(1)	(2)	(3)
로그임금	-0.9031 (0.35)	-1.3782 (0.51)	-0.6374 (0.19)
지원금			
11~46백만원 이하	-1.5781 (0.27)	-3.0206 (0.53)	-2.4935 (0.45)
46백만원 초과	7.4940 (1.56)	3.9609 (0.83)	3.4840 (0.67)
로그자산(a)	1.3546 (1.51)	1.5173 ⁺ (1.72)	1.8130 ⁺ (1.92)
로그자산 * 11~46백만원 이하(b)	0.4511 (0.38)	0.0907 (0.08)	0.1597 (0.14)
로그자산 * 46백만원 초과(c)	-1.1690 (1.13)	-1.5642 ⁺ (1.71)	-1.4192 (1.35)
금융제약(p-값)			
H ₀ : a + b = 0	1.806(0.02)	1.608(0.05)	1.973(0.03)
H ₀ : a + c = 0	0.186(0.72)	-0.047(0.94)	0.394(0.61)
대표자 특성			
무보수 자원봉사		-3.8217 (1.49)	-2.3351 (0.95)
여성		1.6268 (1.12)	1.8831 (1.16)
연령		0.0888 (1.17)	0.1010 (1.27)
주식회사 여부		1.1526 (0.73)	-0.6917 (0.39)
업력		0.4379* (2.57)	0.5663* (2.48)
인증형태			
일자리제공형		15.6079 ⁺ (1.88)	13.6464* (2.02)
사회서비스제공형		15.2967 ⁺ (1.77)	11.3158 (1.64)
혼합형		15.0896 ⁺ (1.75)	11.6918 ⁺ (1.68)
지역사회공헌형		8.4532 (0.93)	7.4378 (0.93)
인증연수		-2.5853 ⁺ (1.81)	-1.7929 (1.16)
상수항	13.4547 (1.13)	5194.1552 ⁺ (1.81)	3595.8538 (1.16)
고정효과			
업종	-	-	11
Adj. R ²	0.0400	0.1109	0.1135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강건한(robust) t-값을 나타내며, *, **, 그리고 ***는 각각 10%, 5%, 그리고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지원금 규모의 준거집단은 지원금이 11백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인증형태의 준거집단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유형에 해당함. 관측수는 94개임.

〈표 2e〉 지원금 규모의 내생성을 고려한 실증분석 결과_여성 대표자의 금융제약

	로그 매출액		
	(1)	(2)	(3)
로그임금	-0.7457 (0.27)	-1.3610 (0.48)	-0.5098 (0.15)
지원금			
11~46백만원 이하	-8.4582 (1.11)	-4.8018 (0.60)	-8.8772 (1.14)
11~46백만원 이하 * 여성	9.7908 (1.26)	-0.0863 (0.01)	12.2586 (1.18)
46백만원 초과	5.3136 (1.19)	2.3100 (0.48)	-1.6927 (0.27)
46백만원 초과 * 여성	2.1285 (0.46)	-0.1233 (0.02)	9.4555 (1.06)
로그자산(a)	0.9522 (0.96)	1.8092 (1.63)	1.5502 (1.31)
로그자산 * 여성(b)	0.9593* (2.18)	-1.0432 (0.99)	0.7669 (0.54)
로그자산 * 11~46백만원 이하(c)	1.9641 (1.28)	0.3392 (0.20)	1.4979 (0.91)
로그자산 * 11~46백만원 이하 * 여성(d)	-2.7488* (1.90)	0.2081 (0.11)	-2.6375 (1.21)
로그자산 * 46백만원 초과(e)	-0.2814 (0.28)	-0.9585 (0.90)	0.0985 (0.07)
로그자산 * 46백만원 초과 * 여성(f)	-1.9664* (1.87)	-0.7411 (0.56)	-3.0910 (1.65)
금융제약(p-값)			
남성 $H_0: a + c = 0$	2.916(0.01)	2.148(0.10)	3.048(0.00)
$H_0: a + e = 0$	0.671(0.04)	0.851(0.02)	1.649(0.01)
여성 $H_0: a + b = 0$	1.912(0.01)	0.766(0.22)	2.317(0.02)
$H_0: a + b + c + d = 0$	1.127(0.09)	1.313(0.08)	1.178(0.25)
$H_0: a + b + e + f = 0$	-0.336(0.69)	-0.934(0.31)	-0.675(0.50)
대표자 특성			
무보수 자원봉사		-4.2679 (1.56)	-1.8707 (0.73)
여성		7.8972* (1.77)	1.0964 (0.19)
연령		0.1123 (1.29)	0.1454 (1.58)
주식회사 여부		1.1759 (0.75)	-0.4060 (0.23)
업력		0.4749* (2.57)	0.5500* (2.64)
인증연수		-2.2411 (1.55)	-1.2538 (0.75)
상수항	13.9291 (1.08)	4501.6065 (1.54)	2512.7441 (0.75)
고정효과			
업종	-	-	11
인증형태	-	5	5
Adj. R ²	0.0373	0.0987	0.1248

주: 괄호 안의 수치는 강건한(robust) t-값을 나타내며, *, **, 그리고 ***는 각각 10%, 5%, 그리고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지원금 규모의 준거집단은 지원금이 1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관측수는 94개임.

〈표 2e〉는 지원금 규모의 내생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대표자의 성별에 따른 금융제약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지원금 규모의 내생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표 2b〉에서의 결과와 비교하면, 대표자가 남성인 경우 지원금 규모가 가장 작은 집단과 11~46백만원 이하인 집단 간 금융제약 여부가 거의 반대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표 2b〉에서는 지원금 규모가 11백만원 이하인 집단에서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지원금 규모가 11~46백만원 이하인 집단에서는 자산의 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반면, 〈표 2e〉에서는 11백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수혜한 집단에서 자산의 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지원금 규모가 11~46백만원 이하인 집단에서는 자산의 증가로 인해 매출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에서의 금융제약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집단 역시 자산의 증가로 인해 매출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산의 매출액 한계효과(marginal effect)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규모의 내생성에 대한 고려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집단-즉, 46백만원이 초과하는 지원금을 받은 집단-의 경우 자산의 증가가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대표자의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정부 지원금이 금융제약을 해소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 〈표 2e〉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금융제약이 지원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에서 보다 크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지원금의 규모가 46백만원을 초과하는 집단의 경우에는 자산의 매출액 증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의 경우와 대조되는 결과이다. 즉, 지원금 규모가 가장 작은 집단에 속하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여성 대표자의 경우 자산부족으로 인한 금융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지원금 규모가 큰 경우 여성 대표자는 지원금으로 부족한 자산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산규모가 열악하여 금융제약 하에 있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 자산의 한계생산이 한계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좀 더 많은 정책 지원금을 제공하여 한계생산이 한계

비용에 근접하게 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고용을 증가시키고 총 이윤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며, 증가된 이윤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 환원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V. 결론

낮은 경제성장률, 인력수급의 불일치,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고령화 등은 일자리 부족 문제를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고숙련, 전문직에 대한 노동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저학력, 저숙련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숙련간 임금격차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들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을 한 대안으로 채택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은 더욱 더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이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정부 지원금의 고용창출효과에 국한되어 있고 그나마도 소수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재정지원효과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과연 재정지원이 사회적 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시켜 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은 영세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만약 재정지원이 사회적 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시켜준다면 기업은 더 높은 성장과 고용창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기업의 금융제약은 마치 교육투자에서의 금융제약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육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보다 더 높을지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교육비에 대한 정부보조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vans and Jovanovic(1989)의 이론에 기초하여 실증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충남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그 모형을 추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전체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자

산이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정부지원금이 증가할수록 자산의 효과가 약화되므로 금융제약이 해소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적 기업 대표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지원금이 높은 수준(46백만원 초과)에서도 금융제약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나, 여성 대표자인 경우에는 금융제약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사업 확장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대표가 남성인 경우에는 금융제약을 해소시켜 좀 더 높은 성장을 달성하도록 하는 한 방안으로 지원금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지원금의 내생성을 고려한 결과, 자산의 매출액에 대한 효과가 다소 작아짐을 볼 수 있으나 지원금 규모에 의한 집단 간 차이는 오히려 보다 명확해 짐을 발견하였고, 대표자의 성별에 따른 금융제약의 차이에 있어서 질적인 결과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우선 정부지원금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 대표자의 성과 사업 확장 의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원금은 과거의 실적에 주로 의존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즉, 과거 매출액, 과거 고용창출정도에 근거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경향이 많다. 이 경우 대표자가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할 때 지원금의 수준은 너무 낮게 책정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가장 높은 지원금을 받는 남성 대표자의 경우 여전히 금융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 낮은 지원금(연간 5.5백만원 이하)을 받는 집단에서 금융제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높은 지원금(연간 23백만원 초과)을 받는 집단의 경우에는 금융제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지원금은 적정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가 충남의 사회적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충남을 대표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얻어진 결과가 다른 지역에도 적용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금의 금융제약효과가 사회적 기업에만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중소기업

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인지, 만약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후속 연구도 정부보조의 효과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1차년도 설문자료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이질성을 통제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추후 2차년도 자료가 완성된다면 고정효과모형 등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정부보조금의 효과를 좀 더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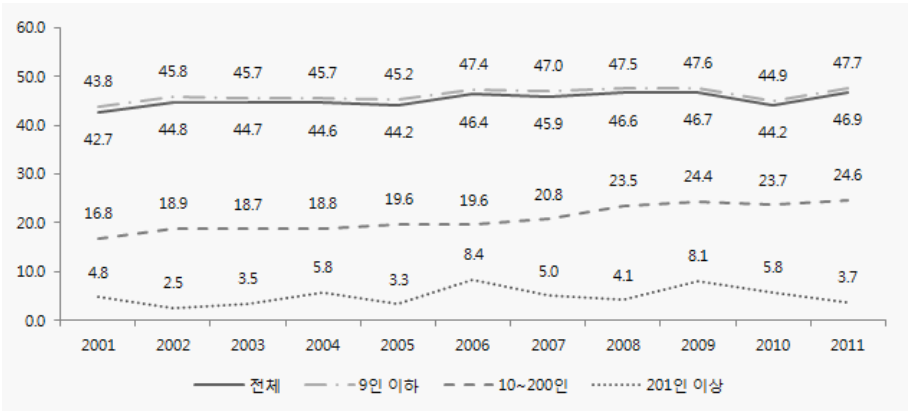
참 고 문 헌

- 김종수·홍성효(2013). “충남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도시행정학보. 제26권 제2호. 97-117.
- 김혜원(2011). “한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 연구: 일자리창출 중심의 지원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18권 제1호. 209-238.
- 문화일보(2013.12.16.). “사회적 기업 1000곳 돌파 <착한 경제, 이제는 사회적 기업이다>”.
- 박찬임(2008). “사회적 기업 창출 및 육성을 위한 과제”. 노동리뷰 43. 31-48.
- 배진영(2010).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실체와 평가”. 자유기업원: 사회적기업육성법. 법률 제8361호(일부개정 2007. 4. 11).
- 성지미·안주엽(2007). “위험감수도와 자영업 선택”. 한국경제의 분석. 제13권 제1호. 125-180.
- 윤윤규(2012). “사회적기업의 고용효과 및 결정요인”. 노동리뷰 83. 20-32.
- 이광우(2008).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수진(2006). “남성관리자와 여성관리자의 사회 네트워크 비교 분석”. 산학경영연구. 제9 권 제1호. 1-24.
- Burke, A., FitzRoy, F., & Nolan, M. (2000). When Less is More: Distinguishing Between Entrepreneurial Choice and Performance.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2(5). 565-587.
- Carter, S. & Rosa, P. (1998). The Financing of Male- and Female-owned Businesses.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10. 225-241.
- ENSR. 1996. The European Observatory for SME's; Fourth Annual Report. Zoetermeer: EIM.
- Evans, D. & Jovanovic B. (1989). An Estimated Model of Entrepreneurial Choice under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4). 808-827.

- Hisrich, R. & Brush, C. (1983). The Woman Entrepreneur: Implications of Family,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Experience, in *Frontiers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Wellesley: Babson College. 255-270.
- Holmes, S. & Kent, P. (1991).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inancial Structure of Small and Large Australian Manufacturing Enterprises. *Journal of Small Business Finance* 1(2). 141-154.
- Honig-Haftel, S. & Martin, L. (1986). Is the Female Entrepreneur at a Disadvantage?, *Thrust: The Journal for Employment and Training Professionals* 7. 49-64.
- Johnson, S. & Storey, D. (1993). Male and Female Entrepreneurs and Their Businesses, in S. Allen and C. Truman (eds.). *Women in Business: Perspectives on Women Entrepreneur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Neider, L. (1987).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Female Entrepreneurs in Florida.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5(3). 22-29.
- Olm, K., Carsrud, A., & Alvey, L. (1988). The Role of Networks in New Venture Funding for the Female Entrepreneur: A Continuing Analysis, in B. Kirchoff, W. Long, W. McMullan, K. Vesper, and W. Wetzel (eds.), *Frontiers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Wellesley, MA: Babson College.
- Riding, A. & Swift, C. (1990). Women Business Owners and Terms of Credit: Some Empirical Findings of the Canadian Experie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 327-340.
- Holtz-Eakin, D., Joulfaian, D., & Rosen, H. (1994). Sticking It Out: Evidence from the Swedish Lotter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2(1). 53-75.
- OECD. 1998. *Women Entrepreneurs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ECD Conference Paris 1997.
- Shaw, E. & Carter, S. (2007). Social entrepreneurship: Theoretical antecedents and empirical analysis of entrepreneurial process and outcome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4(3). 418-434.
- Verheul, I. & Thurik, R. (2001). Start-Up Capital: "Does Gender Matter?" *Small Business Economics* 16. 329-345.

[부 록]

〈그림 1〉 연도별 신생기업 가운데 여성 대표자의 고용 규모별 비율(%)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 년도

〈부표 1〉 지원금 규모에 의한 실제 집단 분류와 추정된 집단 분류의 분포

		실제 집단 분류		
		11백만원 이하	11~46백만원	46백만원 초과
추정된 집단 분류	11백만원 이하	23	9	2
	11~46백만원	7	13	8
	46백만원 초과	2	9	21

주 : 도구변수를 이용한 Ordered Probit 추정결과에 의한 분류임.

Abstract

Financial Constraints and the Growth of Social Enterprises: Gender Differences of the Representatives

Woo-Yung Kim* and Sung Hyo Hong**

This study examines whether social enterprises face financial constraints and governmental subsidies relax their constraints, using the survey data on Chungnam province. We build a theoretical model based on Evans and Jovanovic(1989) and derive a set of empirical models. Our results suggest that social enterprises in Chungnam province are experiencing financial constraints and the governmental subsidies help relax their constraints, leading to business growth. In addition, we have found that the effects of subsidies on relaxing financial constraints are bigger for female representatives than male counterpart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level of subsidies should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gender of the representatives and the eagerness of business expansion.

Key words : social enterprise, financial constraint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wy@kongju.ac.kr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Kongju National University, shong11@kongju.ac.kr.